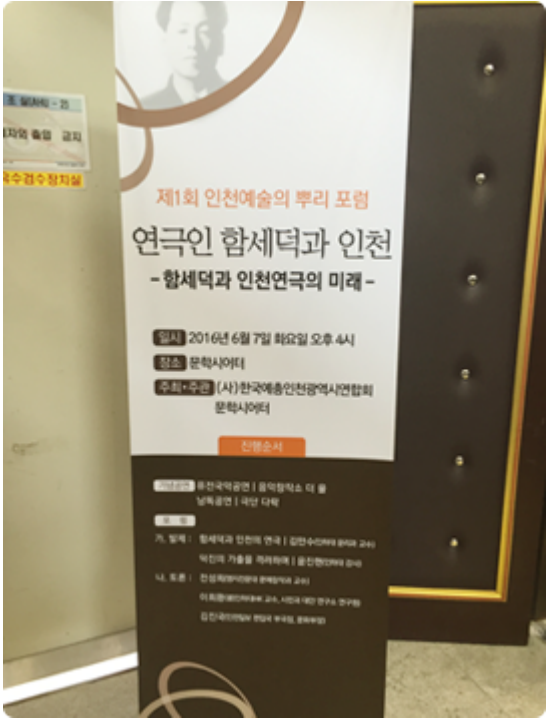






2016년 7월(금)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연극인 함세덕과 인천 연극인” (2016/07 (금)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공연을 통해 연극인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한다.

이번 공연은 연극인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연극인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연극인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함세덕의 삶과 예술 세계를 소개하는 공연이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희환(연극평론가 겸 연출가), 전성희(연극평론가 겸 연출가), 김진국(연극평론가 겸 연출가)이 참석했다. 이희환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희는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꽃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국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열매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환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희는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꽃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국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열매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희환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희는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꽃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국은 “연극은 문화 콘텐츠의 열매이다. 연극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